

고종 31년(1894) 연력장(年曆張)의 역일 검증  
VERIFICATION OF DATES IN THE CALENDAR SHEET (年曆張) FOR THE 3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1894)

박은미<sup>1,2</sup>, 민병희<sup>1,3†</sup>, 이기원<sup>4</sup>, 김용기<sup>2</sup>  
<sup>1</sup>한국천문연구원, <sup>2</sup>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sup>3</sup>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sup>4</sup>대구가톨릭대학교

UHN MEE BAHK<sup>1,2</sup>, BYEONG-HEE MIHN<sup>1,3†</sup>, KI-WON LEE<sup>4</sup>, AND YONG GI KIM<sup>2</sup>

<sup>1</sup>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Daejeon 34055, Korea

<sup>2</sup>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sup>3</sup>Kore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34113, Korea

<sup>4</sup>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 38430, Korea

E-mail: [bhmin@kasi.re.kr](mailto:bhmin@kasi.re.kr)

(Received March 02, 2020; Revised April 06, 2020; Accepted April 07, 2020)

ABSTRACT

We report a calendar sheet for the 3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1894) (hereafter, calendar sheet 1894) in Korea, which calendrical data in a single page. This calendar sheet 1894 is composed of 14 rows by 14 columns (about 190 cells), and various calendrical data are recorded such as the sexagenary circle of the first day in each month, 24 solar terms, full moon day. In this paper, we compare calendrical data of 1894 calendar sheet with those of the almanac based on the Shixian calendar (hereafter, annual almanac) of the same year.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year is expressed using the reign-year of the king of the Joseon dynasty differently from using the reign-style of China in the annual almanac those times. Other calendar days of this calendar sheet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annual almanac in term of lunar dates, 24 solar terms, sexagenary days and so forth. Second, we find that the calendar sheet 1894 contains memorial days for 64 lineally ancestors of the Joseon royal family. These royal memorial days appears in the annual almanac two years later (i.e., 1896). Third, a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we find that the symbol of 工 kept every two cells. It was found that the cells can be filled with three days as the maximum number of days and then are labelled the same symbol 工 every second cell. This feature allows us to get the first year in which this kind of calendar sheet was published. It is conjectured one of 11 years, such as 1845, 1846, 1847,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or 1880. We also think that the format of the calendar sheet 1894 has influenced on the *Daehan-Minryeok* (Korean civil calendar sheet) of 1920.

Key words: General: history and philosophy of astronomy, Astrometry and Celestial Mechanics: time

1. 서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달력을 보고 날짜를 확인하여 일정을 정하곤 한다. 여전히 연말이 되면 다음해의 달력을 주고 받으며 친밀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달력은 인간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로 발행되어왔다.

삼국사기와 무녕왕릉 묘지석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달력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1984; Lee, 1985).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달력은 책력의 형태로

제작하여 유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책력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조선 전기에는 대통력, 후기에는 시헌력 또는 시헌서가 있었다(Ahn, 1997; Lee et al., 2011).

칠정산내·외편이 적용된 1444년 이후부터는 조선에서도 대통력에 따라 책력을 발간하여 반포할 수 있었다. 서양 역법의 영향을 받은 시헌력법은 중국에서 들여와 조선에서 1654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시헌력 초기인 1667년부터 3년간은 대통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1670

† 교신저자

년부터는 시헌력으로 회귀하였다(Lee et al., 2011). 1733년부터는 권두서명을 시헌력에서 ‘시헌서’로 변경하여 인쇄하였고(Lee, 1997), 1896년부터 2년 동안 다시 ‘시헌력’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하였으며, 1898년부터는 제목만 명시력으로 바꾸었다(Ahn, 1997; Lee et al., 2011). 1896년에 태양력으로 개력됨으로써(Lee, 1985; KAO, 1999; Choi et al., 2019) 시헌력에 양력 날짜도 병기하였다.

한편 1896년(고종 33년, 개국 505년)에는 태양력에 의한 역서인 ‘대조선개국오백오년력(大朝鮮開國五百五年曆)’(이 계통의 역서는 ‘대한□□○○년력’이므로 이후 ‘대한력’으로 통일)이 학부관상소에 의해 발간되었다. 1908년까지 지속된 명시력은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지만, 1910년까지 발간되었던 대한력은 그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대한력은 평년이 365일, 윤년이 366일을 적용하였고, 양력과 음력 날짜가 명시력과 달리 배치되었으며, ‘불의(不宜)’ 부분은 제외되었다(Lee, 1985; Ahn, 1997; Lee, 1997; Park, 2016).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 1911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조선민력’을 발간하였다. 조선민력의 내용과 구성은 대한력과 유사하고, 출판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으며, 1937년부터는 약력(略曆)을 발간하면서 조선민력을 대체하였다(Lee, 1985; Ahn, 1997; Lee et al., 2011; Lee, 2017).

조선 후기 시헌력의 구성은 월력장(1장),<sup>2</sup> 연신방위장(1장), 매월의 일력장(12 ~ 13장), 부록장(1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평년에는 15장, 윤년에는 16장의 책력으로 이루어져 있다(Lee et al., 2011; Park, 2013). 월력장에는 월의 대소와 초하루 일진, 24기 시각이 수록되어 있고, 연신방위장에는 연신방위도라고 하여 24방위에 길흉의 연신(年神)을 배치하여 그 해의 방향에 따른 길흉을 나타내었다. 일력장에서는 삭·현·망의 시각 및 24기 시각, 28수와 12직, 일출몰시각, 매일의 역주가 기재되었는데, 매월마다 역일에 대해서 할 일[宜]과 하지 말아야 할 일[不宜]이 역주로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장에는 길흉일과 방향, 오성수택 및 주당도, 책력의 편집자와 감독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Lee, 1985; Lee, 1997; Lee et al., 2011; Park, 2013). 한편 일력장의 두주(頭註)에는 잡질이 표현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내내 잡질의 배당법이 조금씩 변화하였다(Mihn et al., 2014; Shin, 2017).<sup>3</sup> 조선 후기의 명시력에는 왕에 대한 기념일이 기록되기도 하였

다(Ahn, 1997; Park, 2016; Kim, 2018).

우리는 ‘성상 31년(즉 고종 31년, 1894) 광서 20년’의 제목을 가진 한 장의 달력을 보고하고자 한다. 이 달력은 1년간 역일의 내용을 격자 형태의 표에 작성하고 있으나 그 명칭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달력을 ‘고종 31년(1894) 연력장(年曆張)’이라 하겠다(이하 ‘연력장’). 본 연구는 이 연력장의 기초적인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 ‘대청광서이십년세차갑오시헌서(大清光緒二十年歲次甲午時憲書, 1894)’(이하 ‘시헌서’)의 역일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2장에서는 연력장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역일을 기록한 특이한 양식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는 연력장과 시헌서의 역일을 24기, 월건, 망일, 잡절과 기념일 등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4장에서는 연력장이 처음 발간된 시기를 논의하고 연력장 전후에 발행된 한 장짜리 달력에 대해서 토의한다. 마지막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 2. 연력장의 구성

### 2.1. 구성 및 배치

이 연력장은 가로 254 mm, 세로 340 mm의 종이에 광곽(匡郭)<sup>4</sup>의 크기는 이보다 조금 작은 240 × 300 mm이다. 이 광곽에 Fig. 1처럼 대략 14 × 14의 격자판 형태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격자의 한 칸에 특정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종이나 그것들을 모아 묶어서 ‘정간(井間)’이라고 부른다. 통상 목판으로 정간의 틀을 만들어 종이에 인쇄하여 사용한다.

Fig. 1에서 흰 선으로 구역을 나누었듯이, Fig. 2를 보면, 연력장은 크게 ①표제, ②탄일, ③역주, ④역일의 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제는 상단에 양쪽에 꺾쇠 모양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4개의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우상단(① - A)에는 ‘聖上 三十一年’(즉 고종 31년)이, 좌변(① - B)에는 ‘歲次甲午 <德在甲 合在己 建丙寅>’(즉 세차 갑오년, 세덕 갑, 세합 기, 정월 월건 병인월)이, 좌상단(① - C)에는 ‘光緒二十年’(즉 광서 20년, 1894)이, 우변(① - D)에는 ‘凡三百五十四日’(즉, 음력 1년의 길이 354일)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이러한 표제로부터, 이 달력이 고종 31년(1894)의 연력장(年曆張)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연력장의 상단 중앙에는 왕실의 탄일(誕日)이 수록되어 있다. Fig. 2의 ②(탄일 영역)를 보면,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 왕대비전(王大妃殿), 세자궁(世子宮), 빈궁(嬪宮), 순화궁(順和宮)이라는 건물명 아래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고종(高宗, 1852 ~ 1919),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 ~ 1895), 효정왕후(孝定王后, 1831 ~ 1904),

1 여기서 □□(연호)는 ‘건양(建陽)’, ‘광무(光武)’, ‘융희(隆熙)’ 등 연호이고, ○○는 연호에 따른 연도이다. 다만 고종 33년(건양 1년)과 34년은 각각 ‘대조선개국505년’, ‘대조선건양2년’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대한제국의 시기의 달력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두 대한력으로 취급한다.

2 월력장은 단력장(單曆張)이라고도 한다(Park, 2013).

3 두주(頭註)는 일력장에 쓰여있는 주석(annotation)의 한 종류로, 그 위치는 광곽 내에 비어 있는 첫 행, 즉 역일이 시작하는 행의 바로 위에 해당한다.

4 광곽(匡郭)은 고서의 지면[張]에 네 방향을 둘러싸고 있는 굵은 선을 말한다. 글을 쓰는 영역의 경계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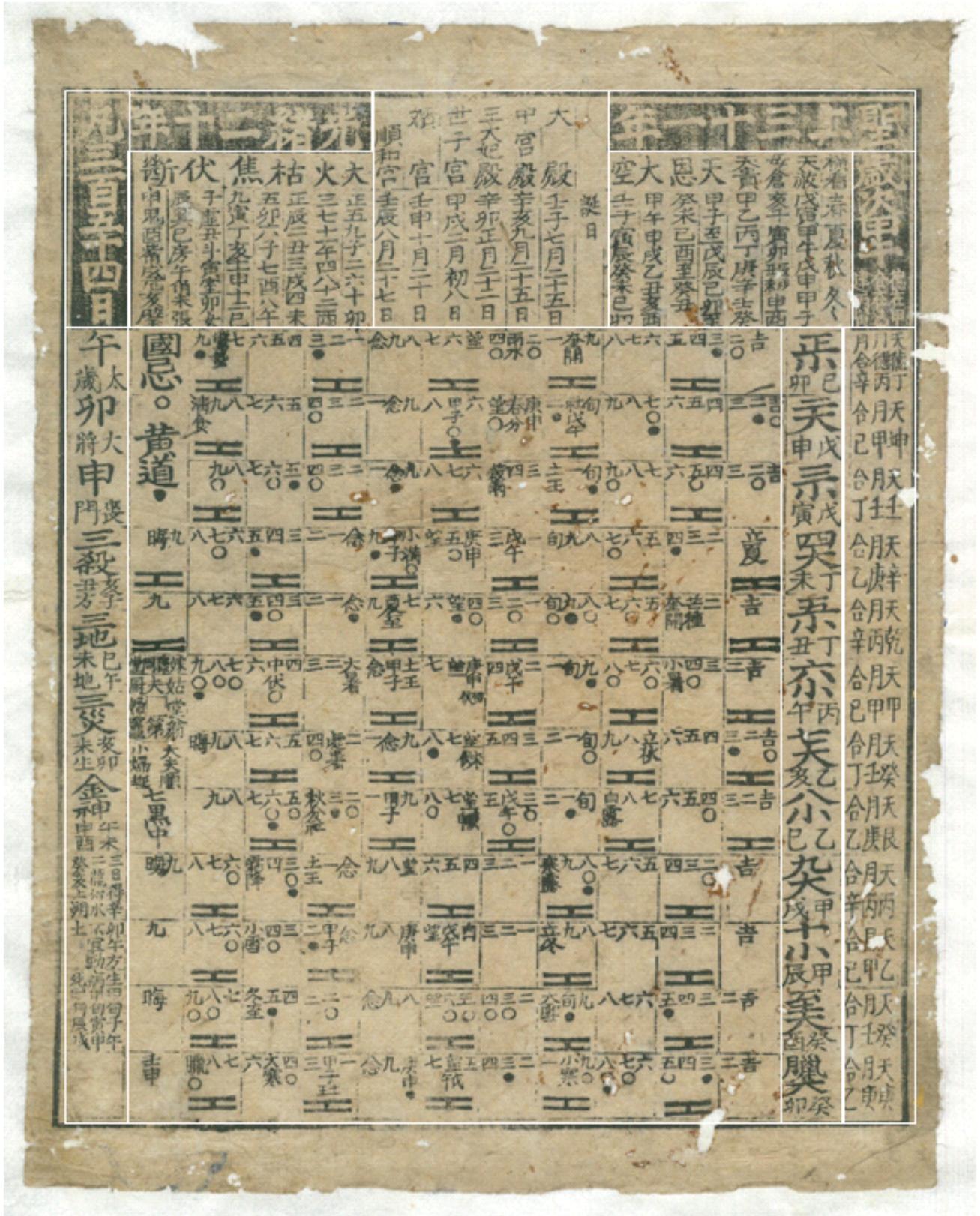


Figure 1. Calendar sheet (年曆張) in 1894.

①-D	①-C	②	①-A	①-B
③-D	③-B	④-B	③-A	④-A
				③-C

Figure 2. Contexture of the calendar sheet in 1894. It consists of four parts; ① cover title, ② birthdays of the royal family, ③ calendar comments, and ④ luni-solar calendar dates.

순종(純宗, 1874 ~ 1926), 순명황후(純明皇后, 1872 ~ 1904), 현종의 후궁 경빈 김씨(1832 ~ 1907) 등이 거쳐하던 전각(殿閣)의 이름을 가리키며, 당시에 신하들이 왕과 왕실의 주요인물에 대해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어 거쳐하는 전각으로 호명을 대신하였다.

연력장 중심에는 12 × 12의 정방형의 역일 부분이 있다. 한편 좌우면 각 1열씩, 그리고 역일의 위, 탄일 영역 좌우 4열씩 역주에 관한 사항들, 즉 역주 영역이 있다.

Fig. 2의 ③(역주 영역)을 살펴보면, 상단 우측(③-A)에는 월길일(月吉日)에 해당하는 천사(天赦), 무창(毋倉), 천귀(天貴), 천은(天恩), 대공(大空)이 표현되어 있고, 상단 좌측(③-B)에는 월흉일(月凶日)에 해당하는 천화(天火), 고초(枯焦), 복단(伏斷)에 대한 설명이 있다.<sup>5</sup> 역일 우변(③-C)에는 월신에 해당하는 천덕(天德), 월덕(月德), 월합(月合)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좌변(③-D)에는 연신방위의 일부 내용과 명리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④(역일 영역)의 맨 우측 1열(④-A)에는 월명과 월의 대소 및 초하루 일진이 기록되어 있고, 왼쪽 열로 나아가면서 매달의 역일을 숫자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그 역일을 숫자 대신 문자로 나타낸 경우는 다음

<sup>5</sup> 월길일과 월흉일은 모두 월신(月神)을 12지(支) 또는 24방향에 대응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12지는 곧 해당하는 일진(日辰)을 의미한다. 이러한 월신은 일정한 행위를 길과 흉의 유무로 나타낸다. 결국 길흉을 가진 월신을 일진에 따라 날짜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를 각각 월길일, 월흉일이라고 한다(Lee, 1985).

과 같은 각종 명칭들로써 이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24기, 망일, 잡절(한식, 토왕용사, 삼복, 이사, 납일), 특정한 날(규개, 무오, 경신, 갑자)<sup>6</sup> 등은 역일 대신 이들 글자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기일(國忌日)과 황도일(黃道日)은 역일 아래에 흰 원(open circles, ○)과 검은 원(filled circles, ●)으로 표시되어 있다.

고종 31년(1894) 연력장(年曆張)은 계사년(1893)에 제작되었는지, 갑오년(1894)에 제작되었는지 확실히 밝힐 수 없다. 더욱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삼력청완문(三曆廳完文, 1795) (古 5120-134), 서운관지(書雲觀志, 1818) (奎 56-v.1-2, 奎 57-v.1-2)<sup>7</sup> 및 삼력청헌(三曆廳憲, 1826) (古大 5120-133)을 살펴봐도, 이러한 형식의 달력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연력장이 19세기 말에 처음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2. 역일의 칸

Fig. 2의 ④에서, 총 12열 중에 가장 오른쪽에는 월명(月名) 칸이다. 이후 왼쪽으로 일자를 순차적으로 적고 있다(한자문화권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쓰고 읽는다).

여기서 역일은 매 칸의 윗 영역에 가로 한 줄로 날짜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1 ~ 9일은 1, 2, 3, ..., 9로 나타낼 수 있지만,<sup>8</sup> 10 ~ 19일 또는 20 ~ 29일도 역시 0, 1, 2, ..., 9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셈 표현은 다소 혼란을 주는 기제 방식이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해, 매월 초하루(1일), 10일, 20일, 30일은 각각 길(吉), 순(旬), 념(念), 회(晦)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길(吉)이 있고 숫자 6이면 초(初) 6일을, 오른쪽에 순(旬)이 있고 숫자 4는 14일을 말하고, 오른쪽에 념(念)이 있고 숫자 8이 적혀 있으면 28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에서, 먼저 ④-A(역일 영역의 월명 부분)는 각 달의 기초정보인 달의 이름, 달의 길이, 초하루 일진이 순차적으로 한 칸에 적혀 있다. 이를 뺀 나머지 11열에 역일이 기록되는데(④-B), 주목할 점은 한 칸에는 최대 3일의 날짜만 기입할 수 있다. 음력에서 매달의 길이는 29일과 30일이며 각각 소월과 대월이라고 한다. 만약 한 칸에 3일을 쓴다면, 27일 치만 9칸으로 완전히 채울 수 있다. 각 월의 첫 칸이 반드시 3일씩 모두 채워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력 달의 길이에서 27일을 뺀 나머지 날수는 대월이 3일, 소월이 2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날수를 2칸에 나누어 기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일의

<sup>6</sup> 규개일은 3.4절에서 설명하였다. 무오, 경신, 갑자는 모두 60간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일진(日辰)을 의미한다.

<sup>7</sup> 서운관지는 2003년에 번역본으로도 발행되었다. 이면우, 허운섭, 박권수, 2003, 서운관지(소명출판, 서울).

<sup>8</sup> 시헌서에서 1 ~ 9일은 초(初)1 ~ 초9일로 나타낸다.

칸에 기록되는 역일이 초하루 하나만 기록한다면, 반드시 말일을 적기 위해서 다른 1칸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일을 쓰는 칸은 최소 10칸이지만, 종종 11칸(= 9 + 2칸)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 Fig. 1에서, 4월, 5월, 9 ~ 12월은 총 11칸이 활용되었고, 정월, 2월, 3월, 6 ~ 8월은 총 10칸으로 충분하다. 후자의 월행(月行)에서 남는 1칸은 주로 명리학적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또 주목할 점은 1칸에 3일이 차면, 격칸[隔間]마다 특정한 기호인 ‘工’을 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工’이 있는 칸을 ‘양工’으로, ‘工’이 없는 칸을 ‘음工’이라고 정한다. 예를 들어, Fig. 1에서 3월 행을 보면, 4 ~ 6일, 10 ~ 12일, 16 ~ 18일, 22 ~ 24일, 28 ~ 29일의 칸 안에 ‘工’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28(일)과 29(일)이 적힌 11월 칸에, 마저 한 숫자를 쓸 수 있지만, 3월이 소월이기 때문에, 말일인 29일만 쓰여진 것이다.

이제 4월행을 보면, 2월 칸에 초하루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초하루가 입하에 해당하므로 ‘길(吉)’ 대신 입하(立夏)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숫자를 적을 수 있음에도 오직 한 날짜만 적고 있다. 그리고 그 칸의 아래에는 ‘工’이 표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3월 행 11월 칸과 4월 행 2월 칸은 그들의 날수를 서로 합하면 3일이 채워지고 역시 같은 종류의 ‘工’이 표시되어 있다. 이렇듯 정월부터 12월까지 연속되는 두 달에서 전월(前月)의 마지막 칸과 해당하는 달(後月)의 첫 칸의 일자 수를 합하면 모두 3일이고, 서로 같은 양工 또는 음工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변갈아 나타나는 ‘工’는 음력 달력인 그 해의 역일 수(lunar yearly day number,  $LYD$ )를 3의 배수에 대한 나머지(remainder,  $R_{LY}$ )로 쉽게 인식하게 해준다.

$$LYD = 3n + R_{LY} \text{ 또는 } R_{LY} = \text{MOD}(LYD, 3) \quad (1)$$

표제에서 나타났듯이, 1894년 연력장의 1년 날수는 354일이다. Eq. 1과 같이,  $LYD$ 가 354면  $R_{LY}$ 는 0이다. 실제 정월 행의 2월 칸(역일 첫칸)의 역일 수(day number of the first date cell,  $FCD$ )와 12월 행의 12월 칸(역일 마지막칸)의 날짜 수(day number of the last date cell,  $LCD$ )를 합치면 3일을 다 채워 Eq. 2와 같이 나머지  $R_C$ 는 0이 된다. 여기서  $R_C$ 는 연력장의 역일 영역인 ④에서 첫칸과 마지막칸의 역일 수의 합을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가이다.

$$FCD + LCD = 3n + R_C \text{ 또는 } R_C = \text{MOD}(FCD + LCD, 3) \quad (2)$$

결국 3의 배수의 나머지를 이용한다고 할 때, 양工과 음工은  $R_C$ 로써  $R_{LY}$ 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호로 이해할 수 있다.

### 3. 연력장의 역일

앞서 언급했듯이 Fig. 2의 ④영역인  $12 \times 12$ 칸에 역일의 숫자 대신 문자를 써서 24기, 망일, 잡절 및 다양한 특정 일자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연력장에 기재된 역일을 검토하기 위해서 광서 20년(1894) 시헌서와 비교하였다.

#### 3.1. 24기

시헌서 표지 다음의 첫 장은 월력장(月曆張)이다. Fig. 3과 같이, 월력장에는 한 달 길이(대소), 초하루의 일진, 24기 시각, 1년의 길이 등이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달력의 요약 사항은 오늘날의 월력요항에 해당한다(Park et al., 2017). 한편 연력장의 ④-A를 보면 매달의 명칭 아래에 순서대로 한 달 길이(대소), 초하루의 일진이 쓰여 있다.

음력 달력에서 한 달의 길이는 30일인 대월과 29일인 소월이 있다. 1894년의 정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의 길이는 순차적으로 상반기에 소월, 대월, 소월, 대월, 소월, 소월이, 하반기에 대월, 소월, 대월, 소월, 대월, 대월이 배정되어, 1년의 길이가 총 354일에 해당한다. Fig. 1의 연력장과 Fig. 3의 시헌서 월력장의 한 달의 길이와 1년의 길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 시헌서의 11월과 12월을 연력장에서는 至(月)와 臘(月)으로 기재하였다. 11월에는 반드시 동지(冬至)가 있어야 하고, 12월에는 납(臘)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을 각각 지월과 납월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력 초하루의 일진(日辰)도 두 달력이 일치하고 있다. Fig. 2의 ④ - A에서, 매 칸 아래에 초하루 일진은 정월부터 기묘, 무신, 무인, 정미, 정축, 병오, 을해, 을사, 갑술, 갑진, 계유, 계묘의 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월이 대월이면 초하루 일진의 천간(天干)이 변하지 않는다. 이를 앞서 언급한 한 달의 대소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Fig. 3의 시헌서 월력장에서, 2행에는 각 달의 초하루 일진이 적혀 있고, 연력장과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력장에는 24기의 명칭이 역일의 숫자가 있는 자리에 대신하여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Fig. 3에서 정월 중기(中氣) 우수(雨水)는 1월 13일이고, 2월 절기(節氣) 경칩(驚蟄)은 1월 28일이다. 마찬가지로 2월중 춘분(春分)은 2월 14일, 3월절 청명(淸明)은 2월 30일이며, 3월에는 중기인 곡우(穀雨)만 있다. 여름 시기의 4월절 입하(立夏)는 4월 1일, 4월중 소만(小滿)은 4월 17일로, 이후 달에는 절기와 중기가 짝을 이루어 배당되어 있다. 이러한 24기는 Fig. 2의 ④에 해당하는 역일과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과 Fig. 3에는 입춘이 없는데, 그 해(1894)에 입춘이 없는 무입춘년(無立春年)이기 때문이다. 윤달이 있는 해는 복입춘년(復立春年), 즉 연초와 연말에 입춘이



Figure 3. Essentials-of-monthly-dates sheet (月曆張) of the Korean Shixian calendar for the year of 1894.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복입춘년 전 해는 대개 무입춘년이 된다(Lee, 1985). 실제 1895년(을미) 시헌서에는 윤 5월이 있고, 1895년의 1월 10일과 12월 21일이 입춘으로 두 번 있다.

### 3.2. 월건, 망일과 잡절

시헌서에서는 정월의 월건(月建)이 병인(丙寅)이다. Fig. 4의 왼쪽은 연력장의 ① - B이고, 오른쪽은 시헌서의 정월 일력장 제목 부분이다. 시헌서에서 정월소(正月小)의 왼쪽에 쓰여진 ‘건병인(建丙寅)’<sup>9</sup>이 연력장에서 세차갑오(歲次甲午)의 아래 할주(割註)<sup>10</sup>에도 쓰여져 있다.

연력장의 역일 영역에는 매달 망(望)이 기록되어 있다. 정월 15일, 2월 15일, 4월 16일, 5월 15일, 6월 16일, 7월 16일, 8월 17일, 9월 17일, 10월 16일, 11월[至月] 17일, 12월[臘月] 16일이 그것이다. 시헌서에는 역일의 윗 열에 합삭시각, 상현시각, 망시각, 하현시각이 그 역일의 행에 맞추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시헌서의 망일을 연력장과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력장에서 누락된 3월의 망일은 시헌서에서 15일임을 알 수 있고, 이 날짜는 역시 곡우에 해당한다.

시헌서의 역일 윗 행에는 달의 위상뿐만 아니라 잡절

<sup>9</sup> 월건은 그 달(朔月)에 복두칠성의 자루가 인(寅)의 방향을 향한다(建)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건병인(建丙寅)’이라고 하면 ‘월건이 병인(丙寅)이다’라는 의미이다.

<sup>10</sup> 한국이나 중국의 도서에 상하로 문자를 쓰는 양식에서, 할주는 주석을 쓰는 방식으로, 한 열을 가상의 반으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단어나 문장에 해당하는 보충설명을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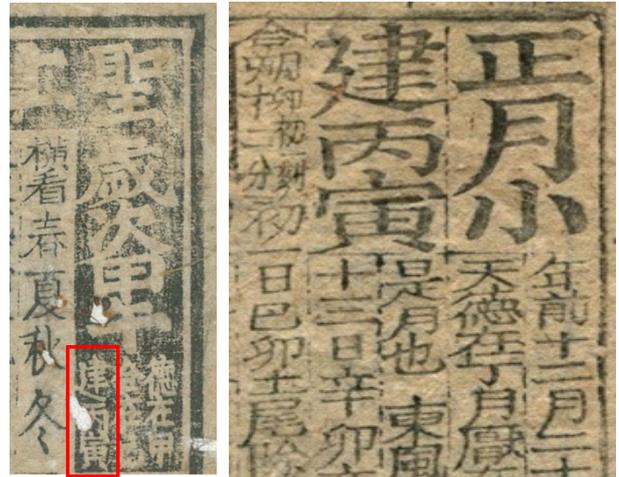


Figure 4. Sexagenary month of first month in the calendar sheet in 1894 (left) and the Korean Shixian calendar (right).

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잡절은 한식(寒食), 이사(二社), 삼복(三伏), 납(臘), 토왕용사(土王用事)를 말한다(Lee, 1985; Mihn et al., 2014). 여기서 이사는 춘사(春社)와 추사(秋社)를 함께 부르는 말이고, 삼복은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을 이르는 말이다. 시헌서에서는 이사를 단지 사(社)로만 나타내고, 토왕용사는 역일 아래 역주에 기술하였다. 연력장에도 잡절을 숫자 대신에 기재하고 있다. 다만 토왕용사는 토왕(土王)으로만 표기한다.

잡절은 조선 전기에 고려와 달리 일부 내용이 새로 규정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시헌력의 도입과정에서 또 일부 잡절의 배당법을 변경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복이다. 하지 후 제 3 경(庚)일이 초복이고, 제 4 경일이 중복이며, 입추 후 제 1 경일이 말복이다. 만약 하지나 초복이 경일이면 그 날을 제 1 경일로 포함한다(Mihn et al., 2014). 춘사는 입춘 후 제 5 무(戊)일, 추사는 입추 후 제 5 무일이다. 토왕용사는 각각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전 1일부터 전 18일까지를 말한다(Lee, 1985). 한식은 동지 다음날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며, 납(臘)일은 동지 후 제 3 미(未)일인데, 만약 동지가 미일이면 그 날을 제 1 미일로 포함하며, 납일이 반드시 12월에 있어야 하므로 간혹 제 2 미일이나 제 4 미일로 납을 삼을 수 있다 (Shin, 2017).

1894년에 춘사는 2월 11일, 추사는 8월 24일이며, 한식은 2월 30일이다. 초복, 중복과 말복은 각각 6월 15일, 6월 25일, 7월 16일이고, 납일은 12월 29일이다. 한편 토왕용사는 3월 12일, 6월 18일, 9월 22일, 12월 22일에 시작해서 각각 입춘 전날, 입하 전날, (다음해) 입추 전날, 입동 전날에 끝난다. 토왕용사는 시작하는 날에 표시한다. 이러한 잡절의 내용은 갑오년 시헌서와도 잘 일치한다.

3.3. 기념일

이 연력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념일을 음력 역일로 수록한 것이다. 여기서 기념일은 조선 왕실의 제사일[國忌日]과 탄신일(誕辰日)을 의미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역서 DB를 살펴보면,<sup>11</sup> 1896년 시헌력부터 이러한 기념일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Ahn, 1997; Park, 2016; Kim, 2018).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상위고(象緯考)」에 따르면, 1894년(고종 31) 11월에 태양력으로 개력하고 시헌력을 참용할 때, 시헌력에 기신(忌辰), 탄절(誕節)과 간길(揀吉)<sup>12</sup>을 쓰게 하였다고 한다(Lee and Yu, 1979). 결국 기념일을 처음 수록한 책력은 1896년 시헌력임이 문헌과 실물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

1894년 연력장에, 당해년 시헌서에도 없는, 6개의 탄신일과 60개의 국기일(國忌日)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특별하다. 1894년 당시는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1894년에 1차 갑오경장이 있었는데, 그 초기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는 조선의 연호를 청(淸)의 광서(光緒)에서 ‘개국(開國)’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 개국기년(開國紀年)이 시행되었다.<sup>13</sup> 그 결과, 11월 20일에 다음해 책력이 ‘대조선개국오백사년세차올미시헌서(大朝鮮開國五百四年歲次乙未時憲書)’로 발간되었다.<sup>14</sup> 1896년에 조선은 태양력을 시행하였고, 1908년(순종 1)에 기념일을 양력의 역일로 바꾸었다.<sup>15</sup> 이렇듯 왕실 기념일이 쓰여진 1894년 연력장은 당시 사회적 변화의 조짐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Fig. 2의 ②영역에는 6인의 탄신일이 기록되어 있다. 연력장이 제작되었던, 혹은 1894년에 생존하고 있던 왕실 가족의 탄신일[誕日]에 해당한다. 즉 음력 1월 22일은 왕대비 효정왕후(孝定王后), 2월 8일은 세자 순종(純宗), 7월 25일은 황제 고종(高宗), 8월 27일은 경빈 김씨, 9월 25일은 중전 명성황후(明成皇后), 10월 20일은 세자빈 순명황후(純明皇后)의 생일이다(Table 1의 ■ 참고).

한편 1896년 시헌력의 일력장은 그 상단에 기념일(탄신일, 기신일)을 기록하고 있다. 1894년의 연력장과 비교하였을 때, 1896년과 1897년 시헌력은 당시 생존해 있었

던 경빈 김씨의 탄신일은 제외되었고, 태조(10월 11일)<sup>16</sup>, 숙종(8월 15일), 영조(9월 13일), 정조(9월22일), 순조(6월 18일), 익종(8월 9일), 헌종(7월 18일)의 탄신일이 추가되었다.<sup>17</sup> 통상 국왕은 6대조를 한계로 한다.<sup>18</sup> 시헌력(또는 명시력)의 두주(頭註)를 통해, 1897년 이후 탄신일의 명칭이 변경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1898년 명시력은 왕태후를 명헌태후(明憲太后)로, 왕후를 황후로, 왕태자비를 황태자비로 기재하였고, 1900년과 1901년은 순조와 익종, 정조, 태조의 시호를 격상하며 그 명칭을 각각 순조숙황제, 문조익황제, 정조선황제, 태조고황제로 변경하였다(Kim, 2018). 한편 효정왕후(명헌태후)가 1904년 1월 2일(음력 1903년 11월 15일)에 승하 후, 1905년 명시력부터 명헌태후의 탄신일은 제외되고 11월 15일 기신일만이 기재되었다.

Fig. 2의 ④영역에, 국기일(國忌日)이 역일 바로 밑에 ‘흰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기일은 당시 국왕의 선대 왕과 왕비의 제사일을 말한다. 조선의 국기일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기판(國忌板) 두 점(유물번호: 창덕20978과 종묘13211)의 내용을 중심으로, Lee (2008)와 Lee et al.(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Table 1은 1894년 연력장의 국기일을 수록하고 있다. 1894년 연력장에는 국기일의 일자만 표시되어 있고, 그 대상자를 나타내지 않았다. 고종 선대의 왕과 왕비가 누구이고 몇 분인지 알아야 이 연력장의 국기일을 파악할 수 있다.

고종은 조선의 26대 왕이므로 그 선대의 왕은 25명이어야 하지만,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 두 왕을 빼면 23명이다. 한편 세조, 성종, 선조, 인조, 영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등은 통상적인 부자 계승으로 왕이 되지 않았다. 종종 어떤 왕은 자신의 왕통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직계 6대조를 한계로 잡아 왕이 아니었던 이를 왕으로 추존하기도 하였다. 고종은 자신의 직계로 덕종(德宗[懿敬世子], 1438 ~ 1457), 원종(元宗[定遠君], 1580 ~ 1619), 진종(眞宗[孝章世子], 1719 ~ 1728), 익종(翼宗[孝明世子], 1809 ~ 1830) 등 4명의 추존왕을 내세웠다.<sup>19</sup> 당연히 선대 왕과 추존왕의 왕비도 국기일에 포함된다.

고종은 선대왕과 추존왕이 총 27명이 있고, 이들의 왕비가 총 39명이다. 태조, 예종, 성종, 선조, 인조, 경종, 영조, 헌종의 부인은 각각 2명이고, 중종과 숙종의 부인 또한 각각 3명이다. 따라서 국기일의 대상자는 66명이어야

<sup>11</sup> <https://astro.kasi.re.kr/almanac/pageView/26>.

<sup>12</sup> 간길(揀吉)은 ‘길한 행위를 가려 뽑는다’는 의미로 황제가 그 달에 행해야 할 각종 국가와 왕실의 의례를 말한다. 간길은 일력장의 위쪽 여백에 두주로 그 내용을 쓰고 있다.

<sup>13</sup> 『고종실록』 권31, 고종 31년(1894) 6월 28일(癸酉),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從今以後, 國內外公私文牒, 書開國紀年事. ....

<sup>14</sup> 『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1894) 11월 20일(癸酉), 軍國機務處進議案 議政府啓, 乙未曆書, 方以開國紀年刊行矣. ....

<sup>15</sup> 『순종실록』 권2, 순종1년(1908) 7월 22일, ... 誕辰及紀念慶節月日定以陽曆件. 並頒布.

<sup>16</sup> 선원전탄신은 태조의 탄신일을 말하며, 1897 ~ 1900년까지의 시헌력과 명시력에서는 태조의 탄신일이 누락되어 있다.

<sup>17</sup> 이는 고종황제의 직계 6조의 탄신일과 건국자인 태조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sup>18</sup>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도 국왕의 외손은 6대손까지 수록한다.

<sup>19</sup> 1894년 연력장에서는 국기판(國忌板)에 있는 장조와 헌경왕후의 국기일이 제외되었다.

Table 1. Birthdays (filled squares) and memorial days (open circles) of the royal family in the calendar sheet 1894

Lunar date		Relevant Person
Month	Day	
1	2	○, The Queen Insun (仁順王后) [the w. of the K. Myeongjong (明宗)]
	12	○, The Queen Jeongsun (貞純王后) [the 2nd w. of the K. Yeongjo (英祖)]
	14	○, The Queen Inheon (仁獻王后) [the mother of the K. Injo (仁祖)]
	22	■, The Queen Hyojeong (孝定王后) or Myeongheon (明憲太后) [the 2nd w. of the K. Heonjong (憲宗)]
2	1	○, The King Seonjo (宣祖)
	7	○, The Queen Danui (端懿王后) [the w. of the K. Gyeongjong (景宗)]
	8	■, The King Sunjong (純宗) [the son of the Emp. Gojong (高宗)]
	15	○, The Queen Jeongseong (貞聖王后) [the w. of the K. Yeongjo (英祖)]
	17	○, The King Sejong (世宗)
	24	○, The Queen Inseon (仁宣王后) [the w. of the K. Hyojong (孝宗)]
3	2	○, The Queen Jangkyeong (章敬王后) [the 2nd w. of the K. Jungjong (中宗)]
	5	○, The King Yeongjo (英祖)
	9	○, The Queen Hyoui (孝懿王后) [the w. of the K. Jeongjo (正祖)]
	24	○, The Queen Soheon (昭憲王后) [the w. of the K. Sejong (世宗)]
	26	○, The Queen Inwon (仁元王后) [the 2nd w. of the K. Sukjong (肅宗)]
29 (30)	○, The Queen Jeonghui (定憲王后) [the w. of the K. Sejo (世祖)]	
4	7	○, The Queen Munjeong (文定王后) [the 3rd w. of the K. Jungjong (中宗)]
	15	○, The Queen Gonghye (恭惠王后) [the w. of the K. Seongjong (成宗)]
	17	○, The Queen Sinjeong (神貞王后) [the w. of the K. Ikjong (翼宗)]
	27	○, The Queen Sohye (昭惠王后) [the w. of the K. Deokjong (德宗)]
5	6	○, The King Ikjong (翼宗)
	8	○, The King Injo (仁祖)
	10	○, The King Taejong (太宗)
	12	○, The Queen Cheolin (哲仁王后) [the w. of the K. Cheoljong (哲宗)]
	14	○, The King Munjong (文宗)
	24	○, The King Taejo (太祖)
6	4	○, The Queen Jeongsun (定順王后) [the w. of the K. Danjong (端宗)]
	6	○, The King Heonjong (憲宗)
	8	○, The King Sukjong (肅宗)
	25	○, The Queen Jeongan (定安王后) [the w. of the K. Jeongjong (定宗)]
	27	○, The Queen Uihin (懿仁王后) [the w. of the K. Seonjo (宣祖)]
28	○, The King Myeongjong (明宗) & Jeongjo (正祖), The Queen Inmok (仁穆王后) [the 2nd w. of the K. Seonjo (宣祖)]	

Lunar date		Relevant Person
Month	Day	
	29	○, The Queen Seonui (宣懿王后) [the 2nd w. of the K. Gyeongjong (景宗)]
7	1	○, The King Injong (仁宗)
	10	○, The Queen Wonkyeong (元敬王后) [the w. of the K. Taejong (太宗)]
	24	○, The Queen Hyeondeok (顯德王后) [the w. of the K. Munjong (文宗)]
	25	■, The Emperor Gojong (高宗)
8	4	○, The Queen Sunwon (純元王后) [the w. of the K. Sunjo (純祖)]
	13	○, The Queen Sindeok (神德王后) [the 2nd w. of the K. Taejo (太祖)]
	14	○, The Queen Inhyeon (仁顯王后) [the w. of the K. Sukjong (肅宗)]
	18	○, The King Hyeonjong (顯宗)
	22	○, The Queen Jeonghyeon (貞顯王后) [the 2nd w. of the K. Seongjong (成宗)]
	25	○, The King Gyeongjong (景宗), The Queen Hyohyeon (孝顯王后) [the w. of the K. Heonjong (憲宗)]
	26	○, The Queen Jangryeol (莊烈王后) [the w. of the K. Myeongjong (明宗)]
	27	■, The Concubine of Mrs. Kim from Kyeongbin (慶嬪 金氏) [a concubine of the K. Heonjong (憲宗)]
9	2	○, The King Deokjong (德宗)
	8	○, The King Sejo (世祖)
	23	○, The Queen Sinui (神懿王后) [the w. of the K. Taejo (太祖)]
	25	■, The Empress Myeongseong (明成皇后) [the w. of the Emp. Gojong (高宗)]
	26	○, The King Jeongjong (定宗)
10	20	■, The Empress Sunmyeonghyo (純明孝皇后) [the daughter-in-law of the Emp. Gojong (高宗)]
	24	○, The King Danjong (端宗)
	26	○, The Queen Inkyeong (仁敬王后) [the w. of the K. Sukjong (肅宗)]
11	13	○, The King Sunjo (純祖)
	14	○, The Queen Hyosun (孝純王后) [the w. of the K. Jinjong (眞宗)]
	15	○, The King Jungjong (中宗)
	16	○, The King Jinjong (眞宗)
	22	○, <i>unknown (maybe typo)</i>
	28	○, The King Yejong (睿宗)
12	29	○, The Queen Inseong (仁聖王后) [the w. of the K. Injong (仁宗)]
	5	○, The Queen Jangsun (章順王后) [the w. of the K. Yejong (睿宗)], The Queen Myeongseong (明聖王后) [the w. of the K. Hyeonjong (顯宗)]
	7	○, The Queen Dankyeong (端敬王后) [the w. of the K. Jungjong (中宗)]
	8	○, The King Cheoljong (哲宗)
	9	○, The Queen Inlyeol (仁烈王后) [the w. of the K. Injo (仁祖)]
	24	○, The King Seongjong (成宗)
	29	○, The King Wonjong (元宗)

○: memorial day

■: birthday

한다.

그러나 5월 4일 효종(孝宗)의 기일(忌日)은 누락되었고, 헌종의 계비인 효정왕후는 당시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기일에 없고 탄신일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다시 국기일 대상자는 64명이 된다. 한편 음력 6월 28일은 명종(明宗), 정조(正祖), 인목왕후(仁穆王后)의 기일이고, 8월 25일은 경종(景宗)과 효현왕후(孝顯王后), 12월 5일은 장순왕후(章順王后)와 명성왕후(明聖王后)의 기일이다. 따라서 중복된 왕과 왕비의 기일을 제외하면 총 국기일은 60일이 된다.

다만 1894년 연력장은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의 기일(12월 23일)을 11월 22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조(世祖)의 정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의 기일은 음력 3월 30일인데, 1894년 3월은 소월이라서 그 말일인 29일을 정희왕후의 국기일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1894년 연력장의 국기일을 1896년 시헌서와 비교하였다. 이 시헌서에서는 고종의 직계가 아닌 왕과 왕비의 국기일이 배제되어 있다. 즉 정종(定宗), 문종(文宗), 단종(端宗), 덕종(德宗), 예종(睿宗), 인종(仁宗), 명종(明宗), 원종(元宗), 경종(景宗), 진종(眞宗)과 그들의 부인들은 그들의 국기일이 표시되지 않았다. 대신에 장조(莊祖, 思悼世子, 1735 ~ 1761)와 그 부인인 헌경왕후(獻敬王后, 惠慶宮 洪氏, 1735 ~ 1815), 순종의 어머니(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의 기일인 각각 5월 21일, 12월 15일, 12월 26일이 기록되어 있다(Kim, 2018).

### 3.4. 규개일

28수에 해당하는 규일(奎日)과 12직(直)이 개일(開日)과 조화되는 역일을 규개일(奎開日)이라고 한다. 규(奎)는 서방칠수의 첫째 수(宿)인데, 『성학대성(星學大成)』<sup>20</sup>에 따르면, ‘규(奎)는 목(木)의 기운으로 문장(文章)의 별자리[宿]이며, 뿔나무이다(奎木乃文章之宿火柴之木也)’라고 표현하고 있다. 규(奎)는 문학과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규운(奎運)은 문운(文運)이라고 불리며, 규장각에서 규장(奎章)은 별[奎]처럼 귀한 글[章]이란 뜻으로 '임금이 쓴 글이나 글씨'를 의미한다고 한다.

한편 12직은 건(建), 제(除), 만(滿), 평(平), 정(定), 집(執), 파(破), 위(危), 성(成), 남(納), 개(開), 폐(閉)를 말한다. 12직(直)은 기본적으로 월건과 관계가 있다. 북두칠성의 자루인 표(杓)<sup>21</sup>가 저녁 천문박명 즈음에 가리키는 방향을 월건(月建)이라고 하는데, 대개 음력 정월 절기인 입춘에는 북두칠성의 표(杓)가 인(寅) 방향을, 2월 절기인

경칩에는 묘(卯) 방향을, 이렇게 12월 절기에는 한바퀴를 돌아 축(丑) 방향을 향한다. 그래서 1월이 인월, 2월을 묘월 등으로 월건이 배당되는 것이다. 12직(直)은 해당 월의 월건의 지(支)와 같은 지일(支日)에 ‘건(建)’을 세우고 직[直]을 배당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인월(寅月, 또는 정월)에는 일진이 인일(寅日)에 건(建)이 있어야 하고, 2월인 묘월이 되면 묘일에 건(建)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12지와 12직은 같은 12의 주기이므로, 일단 한번 결정되면 그 짝이 꾸준히 유지된다. 예를 들어, 정월에 인일이 건(建)으로 배당되었다면, 2월의 인일에도 계속 건(建)이 배당되어야 한다. 인월에 인일을 건(建)으로 배당하기 위해서, 만약 중간에 한차례 같은 직(直)을 거듭 배당하면, 2월에 묘일을 건(建)으로 놓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매년 절기가 되면 전날의 직(直)을 그 날에 반복하여 배당하는 것이다.

12직에서 개(開)는 열어서 통하게 하는 날로 건축이나 이사, 결혼은 좋지만, 장례는 좋지 않다고 한다(Lee, 1985). 그래서 규개일은 ‘문학[奎]이 열려서 통하는 날[開]’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규개일이 28수와 12직의 공배수인 72일 만에 한번씩 반복되지 않고, 대략 112일<sup>22</sup>의 배수 또는 756일<sup>23</sup>만에 다시 돌아온다. 1894년 연력장에서 규개일은 1월 10일과 5월 4일로 서로 112일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 Fig. 5와 같이 연력장의 규개일은 시헌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 4. 토의

### 4.1. 첫 간행시기

2장에서 보았듯이 연력장의 중심인 ④-B에는 음력 12달(또는 13달)의 역일이 11 × 12(또는 11 × 13)의 정방형의 칸에 3일 단위씩 기록되어 있다. 1894년 연력장에서 정월 첫 칸에는 가능한 3일 중 두 날짜만 기록되어 있다. 만약 어느 해에서 처음 이러한 형태의 달력을 만들었다면 정월 첫칸에 吉(一), 二, 三, 모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1894년 연력장의 12월 마지막 칸에는 1일만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 해의 음력일자의 총일수가 354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므로 정월 첫칸의 일수와 12월 마지막 칸의 일수의 합이 3으로 나누었을 때 0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R_{LY} = R_C$ ). 즉 년을 거듭해도 양공과 음공이 그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1894년 연력장처럼 1895년 연력장의 정월 첫 칸은 두 날짜만 기록해야 한다. 즉 1894년 연력장의 12월 마지막 칸

<sup>20</sup> 『성학대성(星學大成)』 권4 35a. 『성학대성(星學大成)』은 명의 가정(嘉靖) 연간인 1550년 경에 활약한 만민영(萬民英)이 편찬한 명리학 도서이다. 그는 『삼명회통(三命通會)』도 편찬하였다.

<sup>21</sup> 북두칠성은 그 7개 별 중에서 사각형의 4별을 괴(魁), 자루 모양인 3별을 표(杓)라고 구분한다.

<sup>22</sup> 절기에는 전일의 직(直)을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28수와 16일(15+1일)의 공배수를 사용한다. 실제 5월 4일 전인 3일이 망종으로 5월 절기이다.

<sup>23</sup> 중기에는 12월 뒤에 12직이 반복되기 때문에 28수와 27일(15+12일)의 공배수를 사용한다. 5월 4일 이후 756일만인 1896년 5월 22일에 규개일이 있는데, 그 전인 그해 5월 11일이 하지로 5월 중기이다.



(a) Calendar sheet in 1894



(b) Korean Shixian calendar in 1894

Figure 5. Gugae-day (奎開日) representing on 10 of the first month and 4 of the fifth month in (a) the calendar sheet and (b) Korean Shixian calendar in 1894.

은 음 $\text{工}$ 으로 그 일수가 하나이므로 다음해 정월 첫 칸은 역시 음 $\text{工}$ 으로 그 일수가 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 두 가지 가정에 따르면, 1894년은 연력장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정 1 : 양 $\text{工}$ 과 음 $\text{工}$ 은 년에 구애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배당된다.

가정 2 : 연력장을 처음 만든 해는 정월 첫 칸에 세 날짜를 기록하였다.

정월 첫 칸에 세 날짜가 모두 기록되는 해는 식(1)과 식(2)을 활용하여 1894년 이전으로 거슬러 추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전해 12월 마지막 칸의 일수( $LCD^i$ )와 금년 정월 첫 칸의 일수( $FCD^{i+1}$ )의 합이 3의 배수이어야 한다.

$$LCD^i + FCD^{i+1} = 3n \tag{3}$$

부록의 Table A1은 삼력청헌이 출간된 이후부터 1895

년까지의 음력년의 총 일수와 연력장 형식에서 나타나는 정월 첫 칸( $FCD$ )과 12월 마지막 칸( $LCD$ )의 날짜 수를 나타내었다. Table A1에서 첫 열은 음력년에 해당하는 서기년도이고, 2열은 왕의 재위년이며, 3열은 음력년의 총 일수이다. 이 음력년의 총 일수는 한국천문연구원 시헌력과 백중력 DB<sup>24</sup>를 참고하여 추출하였다(Lee et al., 2011). Table A1의 4열은 음력년의 총 일수를 3으로 나눈 몫이고, 5열과 6열은 각각 그 해의 정월 첫 칸( $FCD$ )과 12월 마지막 칸( $LCD$ )의 날짜 수이다. 7열은 총 일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R_{LY} (= R_C)$ 이고, 8열은 정월 첫 칸이 양 $\text{工}$ 인지 음 $\text{工}$ 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부록의 Table A2는 정월 첫 칸과 12월 마지막 칸이 양 $\text{工}$ 인지 음 $\text{工}$ 인지 분별하는 조건표이다. Table A2에서 1열은 정월 첫 칸의 날짜 수이고, 2열은 음력년 총 일수를 3으로 나눈 몫이 홀수와 짝수를 구분한 것이며, 3열은 음력년 총 일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이다. 4열과 5열은 앞의 세 열과 같은 조건에서 각각 정월 첫 칸과 12월 마지막 칸의 양 $\text{工}$ 과 음 $\text{工}$ 을 나타내었다. 4열과 5열의 괄호는 음·양 $\text{工}$ 과 함께 그 칸의 날짜 수를 병기하였다. Table A2의 조건표를 통해 Table A1의 8열을 추정해 낼 수 있다.

Table A1에서 주목할 부분은 5열에서 ‘③’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정월 첫 칸의 날짜 수가 3개(이후 ‘FDC-3’이라 표기함)인 연도이다. 가정 2에 따라, FDC-3 연도가 연력장을 처음 발간한 해일 가능성이 높다. 22개의 연도가 FDC-3 연도에 해당하며, 연속되는 것을 빼면, 1829년(순조 29), 1841년과 1845년(헌종 7과 11), 1857년(철종 8), 1873년과 1890년(고종 10과 27)이 있다.

연력장을 처음 시작할 때, 그 해 정월 첫 칸을 양 $\text{工}$ 으로 설정하였는지 음 $\text{工}$ 으로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시작 첫 해의 정월 첫 칸이 양 $\text{工}$ (이후 ‘FDC-양 $\text{工}$ ’)이라고 가정한다면, FDC-양 $\text{工}$  연도는 1845 ~ 1847년과 1873 ~ 1880년이 가능하다.

가정 3 : 연력장을 처음 만든 해의 첫 칸에는 양 $\text{工}$ 부터 시작한다. (FDC-양 $\text{工}$ )

즉 연력장의 첫 발간 해는 1845년(헌종 11)<sup>25</sup>의 3년간 또는 1873년(고종 10)<sup>26</sup>의 8년간 중 한 해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4.2. 단력장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시헌서와 같은 책력과 다른 형태

<sup>24</sup> <https://astro.kasi.re.kr/almanac/pageView/26>.

<sup>25</sup> 1873년은 대왕대비 조씨가 수렴정정이 있던 마지막 해이다.

<sup>26</sup> 1874년 12월부터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끝내고, 고종이 본격적으로 친정을 시작하였다.

의 달력이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경십년을축헌서(嘉慶十年乙丑憲書)<sup>27</sup> (소장번호, 한구-006480-00000)가 그 예로, 순한글이 병기된 달력이다. 이것도 연력장처럼 한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명칭은 알려져 있지 않다.

1756년(영조 32) 5월 4일의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영조가 황단(皇壇)에 봉심(奉審)할 때의 기록이 있다.<sup>28</sup> 황력(皇曆, 중국 황제가 하사한 책력) 소지(小識)<sup>29</sup>의 아래에 자신의 말을 기록하라고 사자관에서 명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영조는 단력장(單曆張)이라는 표현을 한다.<sup>30</sup> 여기서 단력장은 황력같이 책력 안에 있는 특정한 한 장(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1790년(정조 14) 11월 3일 승정원일기의 기록에도 일과단력장(日課單曆張)이라는 표현이 있다.<sup>31</sup> 따라서 단력장은 책력의 첫 장인 월력장(月曆張)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가경십년을축헌서’도 주로 월력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연신방위도와 월길신의 일부, 매월의 대길일(大吉日) 등 선택(選擇)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단력장은 한성의 상민(常民)에게 저렴하게 배포된 흔적도 보인다. 1758년(영조 34) 5월 4일의 승정원일기에는 그 해의 시헌서의 날짜가 중국의 것과 차이를 보였던 정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때 영조가 지방 출신 신하에게 책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다. 그 신하의 답변 중에는 ‘한성의 평민[常漢家] 사이에 단력장(單曆張)이 유통된다’는 내용이 있고, 영조 또한 ‘상민에게는 단력장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 있다.<sup>32</sup> 이를 보면 단력장이 한성 내에서 배포되었고, 조정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황윤석(黃胤錫, 1729 ~ 1791)의 『이

재난고(頤齋亂藁)』에는 한성 내에서 단력장의 매매가격이 7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Jeong, 2002).<sup>33</sup>

이러한 ‘단력’의 어원은 영조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조선에 시헌력 도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효종 4년(1653) 1월 6일의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청에서 시헌력이 시행된 뒤, 조선에서 시헌력의 달력 제작법을 얻어<sup>34</sup> 계산해보니, 북경의 절기시각을 계산해 낼 수 있었고 이는 시헌단력(時憲單曆)과 일치했으며, 조선의 단력[我國單曆]도 계산하여 비교하였는데, 청의 시헌력에 있는 각성(各省) 중 조선의 것과 또한 일치하였다고 한다.<sup>35</sup> 이러한 역일 계산 검증으로부터 그 다음해부터 시헌력 개력을 시행할 발판을 마련하였다(Lee et al., 2010). 여기서 ‘북경의 절기시각이 시헌단력과 일치했다’는 기사로부터, 우리는 단력(單曆)에 24기 시각이 주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책력을 구성하는 여러 장(張) 중에 1년의 절기시각을 모두 모아놓은 것은 Fig. 3과 같은 월력장이다. 따라서 단력은 책력의 월력장(月曆張)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에서 단력장이 유포된 원인은 청의 양광선의 주도로 시작된 시헌력과 대통력의 교차 시행된 10년의 혼란기(Jun, 2002; Kim et al., 2018)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현종 7년(1666) 12월 10일의 현종실록에 따르면, 청에서 강희 6년(1667) 책력이 대통력으로 발간된 것으로 인해, 영의정 정태화가 조선도 대통력을 사용하기를 주장하였고, 현종의 명에 의해 갑작스럽게 시헌력에서 대통력으로의 개력이 실행된다(Lee et al., 2010). 당시 조선은 이미 시헌력으로 책력을 인쇄하여 반사(頒賜)<sup>36</sup>하였는데 청에서 사신이 가져온 온 달력은 대통력으로 계산되었던 것이었다. 이미 연말이었으므로 다시 대통력으로 책력을 발간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력에 의한 단력(單曆) 한 장을 급히 인쇄하여 서둘러 배포하기에 이른다.<sup>37</sup> 그즈음 조선은 전국에 반사할 목적으로 시헌력을

27 가경 10년(嘉慶十年) 을축(乙丑)년은 1805년이다.

<http://www.emuseum.go.kr/detail?relid=PS0100203400600648000000>

28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황단이라고 하고, 봉심(奉審)한다는 것은 임금이 친히 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황제는 이 제단을 환단, 환구(圓丘), 태단(泰壇) 등으로 부르고, 제후국은 이를 사단(社壇), 선농(先農), 남교(南郊)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 여기서 황단은 사직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9 황력소지(皇曆小識)는 황력에 중국 황제가 쓴 짧은 글을 의미한다.

30 승정원일기 1131책 (탈초본 63책) 영조 32년(1756) 5월 4일 신미 11/11 기사, ... 上詣版位, 行四拜奉審訖, 命書寫官書于皇曆小識之下曰, 奉安日更覽, 單曆張第一行大統之大字傍, 有甲申二字, 此必有聖意, 甲申, 何歲? 愴慕菜切, 記末, 特以雙書載錄. ...

31 승정원일기 1683책 (탈초본 89책) 정조 14년(1790) 11월 3일 기묘 18/21 기사, ○ 尹行任, 以觀象監提調意啓曰, 本監日課單曆張, 每月入節目, 若在旬內, 則必書以初字, 卽是近古已例也. 今番日課單曆張, 春夏六朔入節, 皆在旬內, 則當書初字, 而誤爲闕而不書, 事極驚駭. ....

32 승정원일기 1163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1758) 12월 29일 신사 26/28 기사, ... 上下詢賤臣曰, 汝則在鄉, 鄉之曆書貴耶? 兩班家皆有曆書乎? 或但有單曆張乎? 賤臣對曰, 兩班家則皆有曆書, 而常漢家或只有單曆張矣. 上曰, 單曆張足可觀一年矣. ...

33 ○ 追答前官柳漢奎書 爲其請以解由事申飭 故夜送吏李有大有大 使之入京出解由 因附牌于張吏道興 使推七政曆以來 又附中曆三十件 小曆六十件 共價六兩六錢 <京中近年書曆一件二錢 中曆一件一錢 小曆一件六分 小曆而有單曆一張者七分>.

34 청에서 시행된 새로운 달력의 계산법을 김상범(金尙範, ?~1655)이 북경에서 얻어 왔다.

35 『효종실록』 권10, 효종4년(1653) 1월 6일, ... 時憲曆出來後, 以我國新造曆考准, 則北京節氣時刻, 與時憲單曆, 一一相合, 我國單曆, 與時憲曆中, 各省橫看, 朝鮮節氣, 時刻, 亦皆相合, 雖有些少換次之處, 而亦非差違. 自甲午年, 一依新法, 推算印行爲當.

36 반사(頒賜)는 임금이 물건이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금이 책력을 반사할 때는 대개 겹표지를 붙인 후에 나누어 준다.

37 『현종실록』 권13, 현종7년(1666) 12월 10일 병진, ... 上曰: "單曆一張, 急先印出, 斯速頒布, 而前用《時憲曆》, 今雖不用, 亦宜年年印置, 以憑日後推步之差錯, 如前《大統曆》印出之爲也. ... 한편 『서운관지』 권3 <고사>편에는 윤증(尹拯, 629~1714)의 시문집

제작하였지만, 동시에 이전 시기에 사용했던 대통력도 수 개를 따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대통력의 단력, 곧 월력장을 빨리 제작할 수 있었다. 이후부터 예기치 못한 청의 개혁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언제나 제2의 역법에 따른 단력장을 제작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후일 시헌력의 시행이 완전히 고착된 이후에도, 이러한 단력장 인쇄 대기의 관행이 단력장만 별개로 유포하는 계기로 발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18세기인 영·정조 시기에는 한성을 중심으로 단력장이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4.3. 대한민력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달력(한글-006480-00000)과 본 연구의 1894년 연력장은 모두 한 장의 달력이다. 그 중 1804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가경10년(1805, 을축년) 한글 달력은 매 달의 절기시각이 전체 비중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즉 한글달력은 전형적인 단력(單曆)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1894년 연력장은 24기 시각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역일 중심으로 편집한 후 절기일을 표시하고 있다. 연력장이 단력장의 진화된 형태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한 장에 일 년의 내용을 모두 담는 달력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형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연력장의 형태가 더 남아 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만약 조선에서 연력장과 같은 달력을 제작하였다면, 19세기에는 단력은 책력과 다른 형태의 달력으로 민중에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한국 달력의 역사에 단력의 흔적을 남겼을 여지가 있다.

1919년 9월 11일에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1919 ~ 1945, 이후 ‘임정’이라고 함)가 출범하였다.<sup>38</sup> 임정에서도 자체적으로 달력을 편찬하였는데,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임정의 『대한민국4년력서(大韓民國4年曆書)』(1922)는 책의 형태이다. 한편 2008년에 ‘북간도화룡현지신사명동학교건축기’가 북간도(北間島) 명동촌(明東村)에 있는 명동학교(明東學校)에서 발견되었다.<sup>39</sup> 이 한 장짜리의 문서는 가로×세로가 28.7 × 39.2 cm로,<sup>40</sup> 최근 이 문

인 『명재집(明齋集)』을 인용하며, ‘병오년(1666) 2월에 황적색 눈이 내렸다’고 짧게 기술하고 있다.

<sup>38</sup>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임시헌장 10개조를 공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미 국내외에 8개의 임시정부가 선포 및 수립되었었는데, 이를 1919년 9월 11일에 《大韓民國臨時憲法》을 선포하며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출범하게 되었다(Kim, 2019).

<sup>39</sup> 이 문서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뒷면 기록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2019년에서야 알려지게 되었다.

<sup>40</sup> 연력장의 가로 × 세로가 25.4 × 34.0 cm이다.

서 뒷면에 임정의 「대한민국2년대한민력(大韓民國2年大韓民曆)」(1920)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Kim, 2019). 이 문서에 내용이 적혀진 순서를 재구성하면, 대한민력이 제작된 후 ‘북간도 화룡현 지신사 명동학교 건축기’를 후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력」 계열의 달력은 『독립신문』의 지면을 활용해서 배포되었는데, 「대한민국오년력(大韓民國五年曆)」(1923), 「대한민국육년갑자음양합력표(大韓民國六年甲子陰陽合曆表)」(1924), 「대한민국팔년력(大韓民國八年曆)」(1926)이 있다(Kim, 2019). 「대한민국2년대한민력」(1920)은 임정이 발행한 독립신문의 지면과 비슷한 크기로 한 장에 1년의 날짜 및 요일과 기념일, 24기와 각종 시각정보<sup>41</sup>를 담고 있다. 1920년 대한민력은 상단 중앙에 독립군을 묘사한 그림을 크게 배치하고, 조선민력과 달리, 경성의 경도(표준자오선)에 맞춘 표준시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Kim, 2019).

이러한 대한민력 계열의 달력은 연력장과 같이 일 년의 전체 역일을 수록하고 있다. 형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2년대한민력」(1920)이 연력장의 형식과 가장 유사하다. 다만 이 달력은 음양력의 역일을 함께 병기한 특징이 있다. 반면 「대한민국오년력」(1923)과 「대한민국팔년력」(1926)은 그 중앙에 월력장처럼 24기의 절기시각을 놓고, 좌우에 월 단위로 양력의 달력을 나타내고 있다(Kim, 2019).

임정의 「대한민력」과 그 계열들은 태양력(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면서 음력의 역일이나 절기를 병기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1911 ~ 1936년까지 『조선민력』을, 1937 ~ 1945년 동안에 조선총독부의 이름으로 『약력(略曆)』을 편찬하였다(Lee, 1985; Lee et al., 2011; Lee, 2017). 이들은 모두 책력의 형태로, 전자는 양력일자와 음력일자를 병기하였고, 후자는 양력일자로만 나타내고 음양력 대조표를 권말에 달았다.

## 5. 결론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의 역일을 시헌서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이 연력장은 한 장에 14 × 14의 격자판 형태를 가지고, 이들 칸 안에 1년의 역일과 길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력장의 각 칸은, 옛 고서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내용을 읽어야 한다. 연력장의 구성은 크게 표제, 탄일, 역주, 역일의 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역일 부분은 12 × 12의 칸으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연력장의 표제는 ‘성상 삼십일년’, ‘갑오세차’, ‘광서 이십년’과 ‘범삼백오십사일’라고 쓰고 있고, 이는 시헌서

<sup>41</sup> 여기서 시각정보는 24기의 절기시각, 매일 초하루의 일출·몰시각과 주·야시각, 매월의 삭·현·망시각을 말한다(Kim, 2019).

의 서명 ‘대청광서이십년세차갑오시헌서’와 표현양식의 차별이 있다. ‘성상 삼십일년’의 표현처럼 연력장은 시헌서와 달리 당시 고종의 재위년도를 표시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범삼백오십사일’과 같이 시헌서의 월력장 끝에 있는 음력 총 일수도 연력장의 표제로 활용하고 있다.

연력장의 역일 부분에는 그 첫 행의 10칸에 정월의 역일(숫자)이 나열되어 있다. 그 아래에 2월에서 12월의 행이 연이어 있다. 우측 1열에는 월명과 월의 대소, 초하루 일진이 기록되어 있다. 또 이 역일 부분에는 24기, 망일, 잡절 등이 역일의 숫자 대신에 세로쓰기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매달의 대소, 초하루 일진, 24기, 망일, 잡절 등을 ‘대청광서이십년세차갑오시헌서’와 비교하였고 모두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정월의 월건 및 규개일 등도 연력장과 시헌서가 일치하였다.

1894년은 입춘이 없는 무입춘년으로, 연력장과 시헌서 모두 입춘을 제외한 23기만 기록되어 있다. 다만 연력장에서 곡우와 같은 날인 ‘3월의 망일’이 누락되어 있었다. 한편 이 연력장은 조선 왕실의 탄신일(誕辰日)과 제사일[國忌日]을 수록하거나 역일에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1894년(갑오년) 시헌서에는 왕실의 탄신일과 제사일이 기록되지 않았고, 1896년 시헌력부터 이러한 탄기일(誕忌日)이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1894년 연력장에서는 생존하는 왕실 가족 6인의 탄신일이 상단의 탄일 영역(2.1절 참고)에 기록되어 있고, 64명의 돌아가신 왕실 조상들의 기일을 60개의 날짜에 흰 원(○)으로 표시하였다. 다만 여기에서 효종의 기일은 누락되어 포함하지 않았다.

역일 부분에서 역일은 한 칸 당 최대 3일의 날짜가 기입되며, 한 칸에 3일이 모두 채워지면 ‘工’을 써서 표시하였다. 다만 ‘工’은 매 칸에 있지 않고, 한 칸을 건너서 기입되었다. 우리는 ‘工’의 유무에 따라 ‘양工’과 ‘음工’이라고 표현하였다. 만약 한 월의 마지막 칸에 날짜가 3개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일수만큼 그 다음 월의 첫 칸에 마저 채우고 같은 종류의 ‘工’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었다. 하나는 ‘그 해의 총 일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연력장의 정월의 첫 칸과 12월의 마지막 칸의 일수를 합한 것을 3으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는 것이다. 즉 그 해의 총 일수를 통해서 연력장 전체의 역일이 잘 배치되고 작성되었는지를 쉽게 검토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工’의 표시를 통해 연력장이 처음 간행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처음 만들어진 해의 연력장이 그 정월 첫 칸을 3일을 모두 채우면서 동시에 양工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연력장의 첫 간행시기는 1845년(헌종 11), 1846년, 1847년, 1873년(고종 10), 1874년, 1875년, 1876년, 1877년, 1878년, 1879년, 1880년으로 좁힐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한 장 형태의 달력이 발행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단력장(單曆張)’ 또는 ‘단력(單曆)’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내용과 형태는 시헌력의 월력장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순한글이 병기된 한 장짜리 달력도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단력장의 연장선 상에 1894년 연력장을 위치시킬 수 있어 보인다. 즉 1894년 연력장은 또 다른 형태의 한 장짜리 달력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1919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한 장짜리 달력인 ‘대한민력’을 발간하였다. 최근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1920년부터 「대한민국2년대한민력(大韓民國2年大韓民曆)」이 배포되었다. 이러한 대한민력 계열의 한 장짜리 달력은 매해 그 형식이 조금씩 변경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태양력의 달력으로, 1894년 연력장과 유사하게 1년의 역일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서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각각 단력장과 대한민력이라는 한 장의 달력이 있었다. 이들은 형식과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1894년 연력장이 이 둘 사이를 연계하는 매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 ACKNOWLEDGMENTS

민병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No. 2019R1F1A1057508). 이기원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2019R111A3A01055211).

## REFERENCES

- Ahn Y. S., 1997, Changes of Astronomical Almanacs in ‘Our Country in Joseon Dynasty in Korean Calendar and Historical Astronomy (Collection of Papers on Workshop for 100th Anniversary Enforced the Solar Calendar in Korea)’, Eds. Song D. J. & Ahn Y. S., KAO (Daejeon), pp.73-97
- Choi, G. -E., Mihn, B. -H., & Ahn, Y. S., 2019, The Change of the Calendar and Timekeeping System around adoption of the Solar Calendar in Korea, PKAS, 34, 49 <https://doi.org/10.5303/PKAS.2019.34.3.049>
- Jeong, S. -H., 2002, The Prints and Circulation of Calendars in the late Choson, The Choson Dynasty History Association, 23, 119
- Jun Y. H., 2002, Conflicts over the Introduction of Western Sciences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 Focusing on the Western Calendar and the Principle of Fortnightly Period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Dong Bang Hak Chi), 117, 1

- Kim, I. G., 2018, Study on Royal Lineage and Ritual Dates Recorded in the Myeongsi-Calendar (明時曆) During Daehan Empire, *Jangseogak*, 39, 330-379
- Kim, S. D., 2019, Meaning of the Korean Calendar Pu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20,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65, 159
- Kim, S. H., Mihn, B. -H., Seo, Y. -K., & Lee, Y. S., 2018, Life and Astronomical Contribution of Song, I-Yeong, *PKAS*, 33, 31  
<https://doi.org/10.5303/PKAS.2018.33.3.031>
- Korea Astronomy Observatory (KAO), 1999, *The Korean Astronomical Almanac 2000*, Nansandang (Seoul), pp.154-174
- Lee E. H., 1997, Astronomical Almanacs in 'Joseon Dynasty in Korean Calendar and Historical Astronomy (Collection of Papers on Workshop for 100th Anniversary Enforced the Solar Calendar in Korea)', Eds. Song D. J. & Ahn Y. S., KAO (Daejeon), pp.52-72
- Lee, E. S., Yu K. R., 1979, Korean Version for 'Juengbo -Muheon-bigo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of the Comparative Review of Records and Documents), Sangwigo (Astronomy Part)',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Association (Seoul), p.76
- Lee, E. S., 1984, The Stone Biography of King Muryong (武寧) of Paekche and Yuan-Jia-Li-Fa (元嘉曆法),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Dong Bang Hak Chi)*, 43, 39
- Lee, E. S., 1985, *Fundamental Analysis of the Astronomical Calendar*, Jeongeumsa (Seoul), pp.124-423
- Lee, H. -J., 2008, The Gishin-jae services of the Joseon royal family, *The Choson Dynasty History Association* 46, 81
- Lee, K. -W., Ahn, Y. -S., Mihn, B. -H., & Lim, Y. -R., 2010, Study on the Period of the Use of Datong-li in Korea, *JASS*, 27, 55
- Lee, K. -W., Ahn, Y. -S., Mihn, B. -H., & Shin, J. -S., 2011, Database construction and textual analysis of Korean astronomical almanacs, *PKAS*, 26, 1  
<https://doi.org/10.5303/PKAS.2011.26.1.001>
- Lee, K. -W., 2017, Analysis of Time Data in Korean Almanacs of 1913-1945, *JKAS*, 50, 191  
<https://doi.org/10.5303/JKAS.2017.50.6.191>
- Mihn, B. -H., Lee, K. -W., Ahn, Y. S., Ahn, S. -H., & Lee, Y. S., 2014, Analysis of Sambok in Korea, *PKAS*, 29, 1  
<https://doi.org/10.5303/PKAS.2014.29.1.001>
- Park, H. -E., Mihn, B. -H., & Ahn, Y. -S., 2017, Operation of a Lunisolar Calendar in Korea and Its Calculation Method, *PKAS*, 32, 407  
<https://doi.org/10.5303/PKAS.2017.32.3.407>
- Park, K. S., 2013, Calendar Publication and Local Science in Joseon Korea,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35, 69
- Park, K. S., 2016, A Study on Almanacs in the Age of Enlightenment in Korea—On Focus the Changes in the Colonial Rule System of Modern Korea, *Journal of the Society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ology*, 68, 299
- Shin, K. C., 2017, A Study on the Manual of Calendar Making and Calendrical Annotation in the Late Joseon Period, MSc.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pp.18-35

[Appendix]

Table A1. Day number of the First and Last Date Cell (FCD & LCD) which would have written on the calendar sheet for the years of 1826 ~ 1895, if they could be published.

Lunar year	Reign of a King	Total days	Quotient	day no. of FCD	day no. of LCD	$R_{LY} = R_C$	⌈ in FCD
1895	Gojong32	383	127	2	3	2	no ⌈
1894	Gojong31	354	118	2	1	0	no ⌈
1893	Gojong30	354	118	2	1	0	no ⌈
1892	Gojong29	384	128	2	1	0	no ⌈
1891	Gojong28	355	118	③	1	1	no ⌈
1890	Gojong27	384	128	③	3	0	no ⌈
1889	Gojong26	355	118	1	3	1	with ⌈
1888	Gojong25	354	118	1	2	0	with ⌈
1887	Gojong24	384	128	1	2	0	with ⌈
1886	Gojong23	354	118	1	2	0	with ⌈
1885	Gojong22	354	118	1	2	0	with ⌈
1884	Gojong21	384	128	1	2	0	with ⌈
1883	Gojong20	354	118	1	2	0	with ⌈
1882	Gojong19	355	118	2	2	1	with ⌈
1881	Gojong18	384	128	2	1	0	with ⌈
1880	Gojong17	355	118	③	1	1	with ⌈
1879	Gojong16	384	128	③	3	0	with ⌈
1878	Gojong15	354	118	③	3	0	with ⌈
1877	Gojong14	354	118	③	3	0	with ⌈
1876	Gojong13	384	128	③	3	0	with ⌈
1875	Gojong12	354	118	③	3	0	with ⌈
1874	Gojong11	354	118	③	3	0	with ⌈
1873	Gojong10	384	128	③	3	0	with ⌈
1872	Gojong09	355	118	1	3	1	no ⌈
1871	Gojong08	355	118	2	2	1	no ⌈
1870	Gojong07	384	128	2	1	0	no ⌈
1869	Gojong06	354	118	2	1	0	no ⌈
1868	Gojong05	383	127	1	1	2	no ⌈
1867	Gojong04	354	118	1	2	0	no ⌈
1866	Gojong03	355	118	2	2	1	no ⌈
1865	Gojong02	384	128	2	1	0	no ⌈
1864	Gojong01	354	118	2	1	0	no ⌈
1863	Cheoljong14	355	118	③	1	1	no ⌈
1862	Cheoljong13	384	128	③	3	0	no ⌈
1861	Cheoljong12	354	118	③	3	0	no ⌈
1860	Cheoljong11	384	128	③	3	0	no ⌈
1859	Cheoljong10	354	118	③	3	0	no ⌈

Lunar year	Reign of a King	Total days	Quotient	day no. of FCD	day no. of LCD	$R_{LY} = R_C$	⌈ in FCD
1858	Cheoljong09	354	118	③	3	0	no ⌈
1857	Cheoljong08	384	128	③	3	0	no ⌈
1856	Cheoljong07	355	118	1	3	1	with ⌈
1855	Cheoljong06	354	118	1	2	0	with ⌈
1854	Cheoljong05	384	128	1	2	0	with ⌈
1853	Cheoljong04	355	118	2	2	1	with ⌈
1852	Cheoljong03	354	118	2	1	0	with ⌈
1851	Cheoljong02	384	128	2	1	0	with ⌈
1850	Cheoljong01	354	118	2	1	0	with ⌈
1849	Heonjong15	384	128	2	1	0	with ⌈
1848	Heonjong14	354	118	2	1	0	with ⌈
1847	Heonjong13	355	118	③	1	1	with ⌈
1846	Heonjong12	384	128	③	3	0	with ⌈
1845	Heonjong11	354	118	③	3	0	with ⌈
1844	Heonjong10	355	118	1	3	1	no ⌈
1843	Heonjong09	384	128	1	2	0	no ⌈
1842	Heonjong08	354	118	1	2	0	no ⌈
1841	Heonjong07	383	127	③	2	2	no ⌈
1840	Heonjong06	355	118	1	3	1	no ⌈
1839	Heonjong05	354	118	1	2	0	no ⌈
1838	Heonjong04	384	128	1	2	0	no ⌈
1837	Heonjong03	355	118	2	2	1	no ⌈
1836	Heonjong02	354	118	2	1	0	no ⌈
1835	Heonjong01	384	128	2	1	0	no ⌈
1834	Sunjo34	354	118	2	1	0	no ⌈
1833	Sunjo33	354	118	2	1	0	no ⌈
1832	Sunjo32	384	128	2	1	0	no ⌈
1831	Sunjo31	354	118	2	1	0	no ⌈
1830	Sunjo30	384	128	2	1	0	no ⌈
1829	Sunjo29	355	118	③	1	1	no ⌈
1828	Sunjo28	355	118	1	3	1	with ⌈
1827	Sunjo27	384	128	1	2	0	with ⌈
1826	Sunjo26	354	118	1	2	0	with ⌈

Table A2. The chart to check if the First Date Cell of the calendar sheet has with  $\perp$  or not, from the quotient and  $R_{LY}$  of that year of Table A1.

$FCD$ (no.)	Quotient	$R_{LY}$	$FCD$ $\perp$ (no.)	$LCD$ $\perp$ (no.)		
3	odd	0	with $\perp$ (3)	with $\perp$ (3)		
		0	no $\perp$ (3)	no $\perp$ (3)		
		1	with $\perp$ (3)	no $\perp$ (1)		
		1	no $\perp$ (3)	with $\perp$ (1)		
		2	with $\perp$ (3)	no $\perp$ (2)		
		2	no $\perp$ (3)	with $\perp$ (2)		
	even	0	with $\perp$ (3)	no $\perp$ (3)		
		0	no $\perp$ (3)	with $\perp$ (3)		
		1	with $\perp$ (3)	with $\perp$ (1)		
		1	no $\perp$ (3)	no $\perp$ (1)		
		2	with $\perp$ (3)	with $\perp$ (2)		
		2	no $\perp$ (3)	no $\perp$ (2)		
		2	odd	0	with $\perp$ (2)	no $\perp$ (1)
				0	no $\perp$ (2)	with $\perp$ (1)
1	with $\perp$ (2)			no $\perp$ (2)		
1	no $\perp$ (2)			with $\perp$ (2)		
2	with $\perp$ (2)			no $\perp$ (3)		
2	no $\perp$ (2)			with $\perp$ (3)		
even	0		with $\perp$ (2)	with $\perp$ (1)		
	0		no $\perp$ (2)	no $\perp$ (1)		
	1		with $\perp$ (2)	with $\perp$ (2)		
	1		no $\perp$ (2)	no $\perp$ (2)		
	2		with $\perp$ (2)	with $\perp$ (3)		
	3		no $\perp$ (2)	no $\perp$ (3)		
1	odd	0	with $\perp$ (1)	no $\perp$ (2)		
		0	no $\perp$ (1)	with $\perp$ (2)		
		1	with $\perp$ (1)	no $\perp$ (3)		
		1	no $\perp$ (1)	with $\perp$ (3)		
		2	with $\perp$ (1)	with $\perp$ (1)		
		2	no $\perp$ (1)	no $\perp$ (1)		
	even	0	with $\perp$ (1)	with $\perp$ (2)		
		0	no $\perp$ (1)	no $\perp$ (2)		
		1	with $\perp$ (1)	with $\perp$ (3)		
		1	no $\perp$ (1)	no $\perp$ (3)		
		2	with $\perp$ (1)	no $\perp$ (1)		
		2	no $\perp$ (1)	with $\perp$ (1)		